

하향식 번역교수 · 학습 접근법에서의 번역사노트 효용성 연구 — 학습자 심층면담의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

함 수 진
(한국의국어대)

1. 서론

현실 세계에서 번역은 의뢰인이나 독자, 번역의 목적, 심지어 번역료나 납기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상황적 맥락과 함께 공존하는 ‘유기체’와 같다. 그러나 학습자 번역물에는 종종 번역을 ‘표현 대 표현’, ‘어휘 대 어휘’ 치환으로 간주한 듯한 ‘부호 전환’의 흔적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특히 ‘학습으로서의 번역’에 익숙한 대다수 학습자들은 번역의 목적이나, 기능, 독자, 텍스트의 유형과 장르와 같은 화용적 요소(Nord 1997; Colina 2003/2010)를 깊이 고려하지 않거나 심지어 충분히 번역과의 연관성이 있는 단서임에도 그 정보의 타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엉뚱하게 번역을 하기도 한다(Shreve 1997).¹⁾ 물론 졸업

1) Shreve(1997)는 번역능력 습득의 인지적 모형을 통해 이것이 노출과 경험의 축적 정도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번역 상황에서는 명시적인 정보 제공이 항상 담보되는 것

후 전문 번역사로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상황 맥락적·화용적 요소들은 자연스럽게 인지되고 습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가능한 줄이기 위한 시도 또한 전문 번역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화용적 요소를 인식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유용한(Colina ibid: 39-40)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향식 번역교수 학습법’을 설계하였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화용적 요소를 유효한 단서로 활용하여 번역전략을 수립하게끔 하고,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들을 화용적 층위에서 언어적 층위의 방향으로 해결해 가도록 유도하는 교수 학습 접근법이다. 그러나 번역교육 자체가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학습하는 복잡한 지적활동”(Robinson 1997/2003: 49)인데다가, 이미 정착된 사고의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하는 것은 지극히 인지적이고 추상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내면화, 자동화 과정을 돕기 위한 “인지적 발판²⁾(cognitive scaffolding)” (Kiraly 2000)으로 ‘번역사노트’라는 교수 학습 보조 도구를 개발하여 수업에 도입하였다. 번역사노트는 하향식 접근법을 도입한 실험연구와 함께 2013년 2학기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한일번역 수업에 적용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향식 접근법의 전체적인 평가에 앞서 보조도구로 활용된 번역사노트의 효용성과 개선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습자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번역사노트의 활용이 학습자의 인식 및 번역 방법의 변화에 기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실제 이 도구를 한 학기 동안 활용한 학습자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점을 도출하여 후속 연구에 반영하기 위한 단서를 얻

은 아니다. 실제 상황 맥락에 대한 노출과 경험(기존의 ST-TT의 상황적 맥락에 대한 경험, 이미 나와 있는 다양한 번역물에 대한 경험, 의뢰인과의 소통과 번역의 규범과 관습에 대한 사회화 문화 적응 과정)은 브리프의 공백을 메우고 유실된 정보를 획득하는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 그는 실험 연구를 통해 전문 작업의 경험의 축적으로 직관적 소통 능력은 갖추게 된 전문번역사는 이들 단서를 유효하게 이용하였으나 초심자인 학습자들에게서는 이러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 2) Kiraly(2000)는 시장상황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맥락에 기반을 둔 학습을 유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들을 실제 시장상황에 가깝게 노출시키는 교수법을 도입한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헤매지 않도록 “인지적 발판(cognitive scaffolding)”을 제공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하향식 번역교수 · 학습 접근법의 개념과 필요성

본 연구에서 하향식 번역교수 · 학습 접근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학습자들이 1)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2) 화용적 요소를 언어적 요소보다 상위에 두고 번역전략을 수립하며, 3)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를 화용적 요소→언어적 요소의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 중심 접근법을 의미한다. 이 접근법은 번역 실무에 기반을 두고 학습자 중심 교수법을 제안한 노르트(Nord 1997)의 ‘번역 문제 영역 해결의 기능적 위계 구조(functional hierarchy of translation problems)’에 관한 논의를 수렴한 것으로 다음 세 가지 목적을 갖는다. 학습자들이 졸업 후 전문번역사로 배출되었을 때 첫째, 번역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시장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둘째,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셋째, 번역 과정에서 본인이 내린 의사 결정과 판단의 근거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제시함으로써 정당한 평가와 대가를 획득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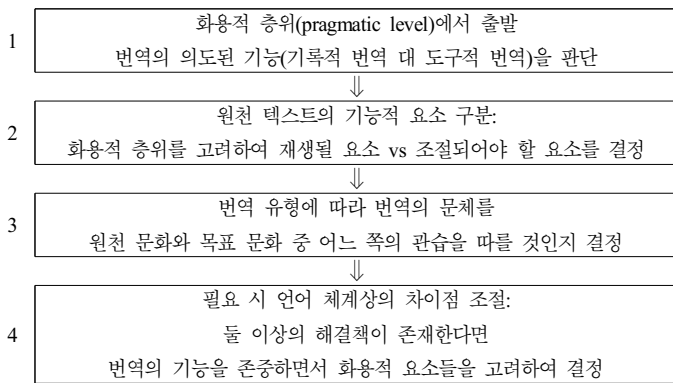
노르트(1997: 63)는 앞서 언급한 학습자들의 ‘부호전환식 번역’ 문제가 번역의 문제 영역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접근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상향식 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의 문법 중심적 접근이나 전통적 번역수업³⁾의 문제 해결 방향으로, 텍스트를 통한 소통의 목적이 없는 “언어 구조의 교체”(Colina 2003/2010: 91) 방법으로 이해된다. 이 접근법에서는 부호전환 작용으로서의 어휘적 등가, 통사적 등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Nord ibid: 67). 이때 학습자에게 화용적 정보는 번역 과정의 의사 결정을 돕는 유효한 단서로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번역 과정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1)

3) 전통적 번역수업에서 ‘번역’은 언어 간의 구조적인 차이를 설명하고 학습자가 그 언어의 문법적 구조와 어휘를 익혔다는 것을 제시해주는 교육학적 도구로 활용된다(Colina 2003/2010: 91)

언어적 텍스트 표층 구조에 맞춰지며 2) 관습과 3) 화용적 층위는 일차적인 고려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러한 접근법의 특징은 첫째, 번역자 개인이 선호하는 문체와 언어 능력에 번역이 크게 좌우되고, 둘째, 문장 단위, 구 단위, 심지어는 단어 단위로 텍스트 간 전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ibid.). 학습자들은 원천 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와의 근접성을 유지하고 싶어지며 이는 목표 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에서 언어 간섭과 오류로 나타난다. 나아가 학습자들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번역된 텍스트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며(ibid.) 심지어 그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은 진공 상태의 언어 치환이 아니다. 번역은 “문화 간 전이”이며 번역된 텍스트는 “단순한 언어의 결집체가 아니라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된다(Vermeer 1986: 9, 33; Snell-Hornby 2006에서 재인용). 노르트(1997: 63) 역시 “모든 번역 과정이 ST의 상황과 TT의 상황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며 의사소통의 기제라는 관점으로 번역을 바라본다. 앞서 살펴본 학습자들의 ‘부호전환식 번역’ 문제에 대하여 노르트(ibid: 67-68)에서는 번역의 문제 영역에 대한 기능적 위계 설정과 그에 대한 하향(top-down)식 접근법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제시한다. 이 개념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번역의 문제 영역에 대한 노르트의 하향식 접근법



이 접근법의 핵심 개념은 화용적 요소가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최우선 사항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노르트(ibid)는 언어적 층위에서 미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상향식 접근법을 지양하고, 화용적 요소를 상위에 두고 화용적 → 언어적 방향의 하향식으로 번역에서 부딪힌 문제 영역을 해결해갈 것을 제안한다. 먼저 번역사는 번역 브리프(4)를 통해 화용적 층위의 단서를 도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이 번역이 기록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인지 또는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⁵⁾ 다음 단계에서는 TT에서 그대로 재생되어야 할 ST의 기능적 요소를 구분한다. 기능주의에 있어서 ST는 어떤 요소를 보존하고 바꿔야할지 결정하기 위한 기준 텍스트(Colina 2003/2010: 49)로서, 번역 브리프와의 비교를 통해 최종 수신자의 배경 지식이나 기대, 소통적 니즈나 매체의 제한, 상황 지시어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할 요소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만약 번역의 목적이 ST의 언어적, 텍스트적 구조를 밝히는 것이라면 그 결과물은 원천 언어 텍스트에 크게 의존하는 TT가 되어야 할 것이다(ibid: 48-49).

다음 단계에서는 결정된 번역의 유형에 따라 장르관습이나 문체를 원천 문화, 목표 문화 어느 쪽의 관습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하향식 접근법에서는 그런 다음에야 필요하다면 언어 체계상의 차이점이 작용한다. 노르트(1997: 68)는 이 시점에 여전히 둘 이상의 해결책이 존재한다면 언제나 마땅히 번역의 기능을 존중하면서 맥락적인 측면에 따라, 혹은 덜 관습화된 텍스트의 경우에는 번역자 자신의 개인적 선호 여부에 따라 궁극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
- 4) 번역 브리프란 번역사가 번역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자로부터 받는 명시적, 암시적 지시사항 일체를 말한다(Nord, 1997: 30, 137). 이상적인 브리프는 의도된 목표 텍스트의 기능, 목표 텍스트 최종수신자, 전달 매체, 예기된 장소 및 시간, 때로는 텍스트 생산 또는 수용의 동기를 포함한다(Nord ibid: 137). 그러나 Harvey(1998: 59-62)도 지적했듯이 상업적 또는 산업적 번역 상황에서 브리프가 항상 명시적인 것은 아니며 각 구성요소의 중요도 순위가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 5) Nord(1997)는 번역 과정을 기록적 번역(documentary translation)과 도구적 번역(instrumental translation)으로 구분한다. 기록적 번역은 원천 문화 발신자가 ST를 통하여 원천 문화 수용자들과 나눈 소통적 상호작용에 대한 일종의 기록을 TL로 생산하는 것을 지향한다. 주해 번역, 외래화 번역(문학 작품) 등이 해당된다. 한편 도구적 번역은 ST를 모델로 활용하여 원천 문화 발신자와 목표 문화 수용자 간의 새로운 소통적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를 TL로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번역에서 흔히 다루는 비문학 실용텍스트(사용설명서, 조리법, 관광 가이드북, 광고 등)의 번역은 도구적 번역의 방법 중 동기능 번역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제안한다.⁶⁾

이러한 문제 해결 방향은 일반 번역교육보다 전문번역교육에서 더욱 유용하다⁷⁾. 현실 세계에서 번역은 제 2언어 숙달을 위한 언어 연습이 아니며(Colina 2003/2010: 8),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독자를 위해 생산되며 특히 비문학 전문번역의 경우 목표 문화에서 실행되는 특정한 소통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ibid: 38).

아울러 이 접근법은 “일반화”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를 갖는다. 노르트(ibid: 68)는 이 접근법을 반드시 번역교육의 초기 단계에서 다룰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언어나 문화, 심지어는 번역 과정의 언어 방향과 관계 없이 번역교육에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다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루어야 하는 번역의 문제 영역이 다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사고 체계에 이들 개념과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각인되고 자동화 내면화될 수 있다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양된 방법론적 능력과 메타인지능력이 다양한 (통)번역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교수·학습 시의 인지적 활동 보조도구

본 연구에서 번역사노트는 화용적 요소를 상위에 두고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흐름을 유도하는 장치이자, 인지적 내면화를 돕는 매개체로 자리매김 된다. ‘번역사노트(Translator’s Note)’라는 명칭은 하비(Harvey

-
- 6) 여기에서 한 가지 단서를 달아두어야 할 것은 이 접근법의 의미가 화용적 요소만을 고려 대상에 넣고 언어적 충위를 배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ST의 언어적 충위는 번역 전략과 문제 해결에 충분한 단서로 활용된다. 단순 맵핑식의 전이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능적으로 충분한 번역을 위한 의사결정의 최우선 충위는 언어적 요소가 아닌 화용적 요소에 있다.
- 7) 일반적인 학부 번역교육과 달리 전문번역교육은 학습 과정의 목표나 교수자, 지향하는 번역 활동, 교육에서 중점을 두는 능력, 그리고 번역의 접근방식의 관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분된다. 학부에서 주로 텍스트의 언어적 수정과 ST-TT 간 언어적 일치에 중점을 둔다면 전문번역교육에서는 TT의 목표와 정보에 중점을 두고 실제 전문적인 번역 상황에서의 독자, 저자, 고객, 번역사 등 다양한 주체를 고려한 상호 커뮤니케이션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Gile 2005: 8-11; Delisle 2005: 52-57; 김대영 2014: 43에서 재인용).

1998)에서의 술어를 차용한 것이나 형식이나 내용 측면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8) 오히려 핵심 틀은 노르트(1997)의 ‘텍스트 분석 모델’이나 콜리나(2003/2010)의 ‘사전 번역 활동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2.2.1에서는 먼저 이 두 가지 모델의 개념을 개괄할 것이다. 다만 이 모델들은 문서로 배포되는 형식은 아니었다. 따라서 2.2.2에서는 번역 수업에 도입된 문서화 형식의 인지적 교수 학습 보조도구를 다루어 번역사노트 설계를 위한 추가 단서를 얻고자 한다.

2.2.1. 노르트의 텍스트 분석 모델과 콜리나의 사전 번역 활동 모델

노르트는 학습자들이 기능주의적 개념에 근거하여 ST의 기능을 이해하고 번역의 목적에 적합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번역지향적 텍스트 분석모델(translation-oriented model of text analysis in translation)(Nord 1988/1991; 1997)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델의 목표는 모든 텍스트 타입과 번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ST 분석 모델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노르트는 화용적 문제가 ST와 TT의 상황 간 상이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텍스트 외적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텍스트 내적 특성(intratextural factor)을 살펴보기에 앞서, ST를 둘러싼 중층적인 텍스트 외적 요인(extratextual factor)을 분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초기 모델은 ‘누가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어떤 매체로?... (후략)’(Nord 1988/1991: 144)과 같이 신수사학적 기법으로 제시되었으나 노르트(1997)에 이르러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보다 세부적인 모델로 변경되었다.

8) 기존에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활용되었던 일련의 도구들은 ‘번역일지’, ‘학습일지’, ‘학습 저널’, ‘수정차트’와 같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성격이나 방향성이 연구자가 의도한 바와 다소 상이하였고 명칭으로 인해 자칫 학습자들에게 선입견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Harvey(1998)의 ‘번역사노트’는 문제 해결 보고서나 기록, 자가 감수 등 어떠한 내용을 담더라도 명칭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차용하게 되었다.

〈표 1〉 노르트의 번역 지향적 텍스트 분석 모델(Nord 1997: 59)

상위 범주	하위 범주
1) ST-TT 프로필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들 • 발신자와 수용자 • 텍스트 수용의 시간과 공간 • 전달 매체(구어/문어) • 제작 동기(ST는 왜 쓰였고 왜 번역되는가)
2) ST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전제: 참여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현실적 요인들 • 내용: 내포적 의미와 결속성 포함 • 구성: 미시구조와 거시구조 포함 • 비언어적 요소: 삽화, 이탤릭체 • 어휘: 방언, 어역, 전문용어 포함 • 문장 구조 • 초분절적 특성: 강조, 음조, 문체론적 구두법 포함
3) 번역문제의 기능적 위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의 기능을 결정: 기록적 or 도구적 • TT 수용자에게 맞게 변경되어야 하는 기능적 요소를 결정 • 번역 유형은 번역 스타일을 결정: SL 지향 or TL 지향 • 하위 언어적 층위에서 텍스트 문제를 해결

이 분석 모델은 세 가지 상위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1) ST-TT 프로필 비교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ST의 화용적 특성을 식별한 후 어떠한 요소들이 ‘미래의’ TT에서 바뀌어야 할 것인지를 판별한다. 그 근거로 활용되는 것은 목표 언어와 문화에 대한 번역사의 지식, 번역 관습(translation convention), 그리고 번역 브리프이다. 특히 번역 브리프는 번역사가 만들려고 하는 TT의 상황적 특성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 원천으로 기능한다(Colina 2003/2010: 53). 따라서 번역자는 번역 브리프 분석을 통해 기능적으로 충분한 TT를 만들어내기 위한 번역전략을 고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 ST분석인데, 이 단계에서는 ST의 텍스트 내적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번역 전략의 기능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분석 대상에는 주제와 전제, 구성, 그리고 어휘나 문장구조 등과 같은 언어적 요소와 삽화 등은 비언어적 요소 등이 포함된다. 3) 단계에서는 번역에서의 기능적 위계를 설정한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번역의 기능=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번역의 유형이 기록적이냐 도구적이냐가 결정되면 TT의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기능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또한 번역의 유형이 SL과 TL 중 어느 쪽을 지향할지가 함께 결정된다. 어휘, 표현 등의 언어적 층위의 결정은 기능적

위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해결책이 두 가지 이상 존재할 경우 화용적 요소에 대한 고려와 번역의 기능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콜리나(2003/2010)의 모델을 살펴보겠다. 노르트(1991; 1997)의 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콜리나는 소통적 번역 교수법을 토대로 한 일련의 수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수업의 한 단위로 ‘ST-TT 프로필 비교’ 활동을 도입했다는 점인데, 콜리나의 수업 모델에서 번역은 1) 사전 번역 활동→2) 독해(이해 활동)→3) 언어 중심 활동→4) 후반 번역 활동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수업 모델에서 1) 사전 번역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ST와 TT의 화용적인 요소를 고려하게끔 하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이해된다. 다음 <그림 2>를 살펴보자.

<그림 2> 콜리나의 사전 번역 활동(Coilina 2003/2010: 166-170)⁹⁾

활동 ① ST와 TT에서의 화용적 요소 비교

1단계 ST분석	2단계 번역 브리프 분석	3단계 TT분석
기능	→ 전이	기능
대상		대상
수용 시간		수용 시간
수용 장소		수용 장소
전달 매체		전달 매체
제작 동기		제작 동기



활동 ② 화용적 요소와 번역 스타일의 결정

1단계	ST와 TT의 상황적 요소 비교 번역 브리프에서 제시된 TT의 상황적 차이점을 인지 ST를 읽고 이 차이가 번역의 스타일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려
2단계	텍스트 유형과 장르: 구조, 구성, 구문 상의 특징 파악
3단계	TL에서의 해당 텍스트 유형, 장르로 인지하게끔 하는 특징들을 파악
4단계	병렬텍스트의 분석
5단계	번역의 유형을 결정: 기록적 or 도구적



활동 ③ 조사 · 연구와 문서화: 병렬텍스트 분석 또는 용어 등의 조사

9) 표는 Coilina(2003/2010: 166-170)에 제시된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이다.

먼저 1) 사전 번역 활동은 크게 활동 ①-활동 ③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이 번역 브리프를 검토한 후 화용적 요소가 TT에 어떻게 전이 되는지를 고려하여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번역 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 지도 활동이 지향하는 바는 학습자들이 번역을 언어 층위를 뛰어 넘는 소통적인 활동으로 이해하고, 하향식 접근법의 활용을 통해 번역교육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문장 중심, 형식주의적 접근)과 기호 지향적 번역을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상위 범주로 돌아가 보자. 3) 언어 중심 활동 중 본 연구에 참고할 만한 사항으로는 작은 번역 단위와 언어학적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되, 기호 번역과 부적당한 전이를 피하고 초기의 총체적 결정이 이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하게끔 하는 작업이다. 마지막 4) 후반 번역 활동에서는 ‘TT의 목적과 대상 독자를 고려할 때 번역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번역 브리프를 작성하고 그것이 번역 유형의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등의 토론 후 수업은 마무리된다. 콜리나(ibid: 159)에 따르면 4)의 활동은 번역 과정에 대한 원리적인 설명을 유도하고 본인의 의사결정에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노르트와 콜리나가 제시한 상기 두 모델은 하향식 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화용적 요소를 번역 과정의 의사 결정에 유기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바에 부합한다. 다만 노르트의 모델은 ST에 대한 분석 항목이 매우 상세하고 촘촘하다는 특징이 있어 번역 학습 초기에 활용하기에는 실용성과 효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번역 과정에 관련되거나 문제가 있는 영역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항목을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한편 콜리나의 활동 모델은 형식면에서 교실 수업 공간에서의 활동을 상징한 표본이라는 점에서 교사에 의한 지도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그 형식이 칠판 판서나 교사-학습자 간 토론을 통해 교실 내에서 공유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문서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2.2. 번역일지 형식의 교수 학습 보조도구

다음으로는 문서 작성의 방식으로 번역 수업에 도입된 교수 학습 보조도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면 상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겠다.

〈표 2〉 학습자의 인지적 활동을 돕는 다양한 교수 학습 보조도구

Gile (1992)	CRIPD(번역의 의사결정과정 및 문제점에 관한 보고서)를 제안함. 학습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부딪치는 각각의 문제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딜레마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사용된 자료들을 명시하게 함. 학습자들이 번역의 어려움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전략을 통해 그들의 번역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줌 (김대영 2013: 73에서 재인용)
Harvey (1998)	번역사노트(Translator's note)라는 술어를 사용함. 학습자들에게 각기 다른 브리프 두 개를 제공하고 학습자들이 번역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어떻게 TT를 조절했는지 작성하도록 함. 학습자 번역물에 대한 일종의 주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봄
Adab (2000)	학습자들에게 번역소개서(Introduction)를 작성하도록 함. 번역 상황과 시장을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학습자들은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 영역과 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기술하게 하였음
김혜영 (2004)	번역학습자의 사고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TAP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신하는 도구로서 ‘번역일지’를 도입함. 제시된 번역일지의 형식은 TT를 왼쪽에 배치, 문제 영역에 번호를 매기게끔 한 뒤 오른쪽에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나 전략을 병렬로 기술하도록 하였음
강경이 (2011)	과제물의 감수활동을 도입한 중한번역수업에서 ‘번역일지’와 ‘수정차트’를 도입함. ‘번역일지’는 번역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며 ‘수정차트’ 1차 번역본을 재감수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음
김진숙 (2012)	번역 과업을 부여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스스로 번역 브리프를 작성하도록 함. 교사가 TT의 게재 매체를 전달하면 학습자가 번역의 목적, 용도, 사용자, 번역 방침 등을 유추하여 스스로 번역 브리프를 작성한 후 번역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점 및 해결방법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도록 함

이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형식의 도구를 수업에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었다. 그 목적은 주로 학습자들의 번역에 대한 인지적 활동이나 사고 과정을 돕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대체로 학습자들이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일종의 ‘번역 일지’나 ‘번역 후기’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문서로 작성되는 번역일지는 폭스(FOX 2000: 128)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번역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 결정과정을 작성함으로써 각기 다른 해결책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돕고, 자신만의 평가 기준을 세우게 한다는 점에서 자가 감수 능력 증진에 효용성이 있다.

3. 실행연구 설계

3.1. 실행연구 개요 및 수업 설계

본 연구는 하향식 번역 교수 학습 접근법을 도입한 1차 실행연구로서 2013년 2학기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 개설된 1학년 한→일번역수업 수강 학습자 9명을 대상으로 16주차 간 실시되었다.¹⁰⁾ 학습자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 학습자 관련 사항

학습자	S1	S2	S3	S4	S5	S6	S7	S8	S9
모어	쓰기: J 말하기: K	K	K	K	K	K	K	J	K
직장 근무 경험	無	無	無	有	無	無	無	有	有

본 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학기 초반인 1주차-3주차에는 기능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화용적 요소가 번역에서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학습자들은 화용적 요소에 따라 번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학기 초에만 언급하면 잊을 수 있으므로 수시 언급하여 학습자들을 상기시켰다.
- 2) 교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번역 과제와 번역 브리프를 배포하였다. 번역 브리프에는 교사에 의해 임의로 설정된 화용적 정보가 제공되었다.¹¹⁾

10)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1학년을 대상으로는 두 학기에 걸쳐 네 과목의 번역수업이 개설된다(1학기: 일반번역A-B/B-A, 2학기: 산업경제번역A-B/B-A). 본 연구는 산업경제번역A-B에 적용되었다. 학습자들은 1학년 1학기에 일반번역 두 과목을 각각 16주간 동안 수강한 경험이 있다.

11) 수업에서 번역 브리프는 총 9회 제시되었다. 초반에는 번역이 이루어지는 배경이나 목적 등에 대해 가능한 상세하게, 후반부에는 대략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이유는 1) 수회에 걸친 상황 맥락 노출 경험을 통해 화용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어느 정도 내면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2) 실제 번역현장에서의 번역 브리프는 반드시 명시적이지만은 않으므로 누락된 정보를 채우는 연습을 위해, 3) 2)를 위한 작업으로서 의뢰인(교사)과의 소통 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11주차의 경우 번역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라 번역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자 그룹을 두 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번역 브리프를 제시하였다. 부록에 초반부(4주차), 중반부

- 3) 번역 과제 분량은 평균 A4 2/3매~1매 수준이었으며 번역사노트를 함께 작성하도록 하였다. 번역사노트 작성 방법은 2-3주차에 설명하고 작성 방법, 샘플 등을 공유한 후 궁금한 점을 수업 중이나 메일로 문의하도록 전달하였다. 도입 기간은 본격적인 번역 과제를 제출하는 4주차부터 15주차까지 총 9회였다.
- 4) 번역과제의 텍스트장르는 계약서, 사용설명서, 보고서, 기사문, 논문, 홍보문, 서신, ppt 슬라이드 등 시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용 텍스트장르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텍스트유형은 학습자가 느낄 텍스트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초반에는 정보적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점차 작용적, 표현적 요소가 가미된 복합 텍스트유형으로 이행하였다.
- 5) 수업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2:1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반부에는 학습자간 토론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번역 브리프에 명시적 암시적으로 제시된 화용적 요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번역전략을 수립했는지, 번역 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후반부에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공통 피드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참조 가능한 병렬텍스트를 배포하였다.
- 6) 학습자들은 수업 종료 후 일주일 간 본인 번역물을 감수하였다. 어느 부분을 수정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번역사노트에 기재하여 2차 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교사는 이를 검토하고 학습자 TT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3.2. 번역사노트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2.2절을 통해 논의한 도구들에서 취사선택하고 필요한 항목을 추가 재구성하여 번역사노트를 설계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 분석 모델(Nord 1997; Colina 2003/2010)에서는 ST-TT 프로필 비교 활동과 이를 통한 번역 유형(기록적 vs 도구적)의 결정 항목, 그리고 ST분석 항목(Nord ibid) 중 일부를 도입하였다. 문서화된 도구들로부터는 문제 영역에 대한 의사결정 및 번역 전략 서술 항목(Gile 1992; Adab 2000; 강경이 2011)과 자가감수 항목(강경이 2011)을 도입하였다. 세부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위 항목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다음 표와 같이 각각의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

(11주차, 후반부(15주차)의 번역 브리프 예시를 첨부하였다.

〈표 4〉 번역사노트의 상·하위 항목과 각각의 목적

상위 항목 (작성 시점 가이드라인)	하위 항목	목적
A. ST - TT 프로필 비교 (번역 전)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 텍스트장르, 독자, 수용 시간과 공간, 게재 매체, 번역 목적	번역 브리프를 통해 TT에서 변경되어야 하는 화용적 요소를 유추한다.
B. ST 분석 (번역 전)	주제 분야, 내용, ST 독자가 알고 있을/모르고 있을 정보, 장르관습(3-6개 항목)	번역 전 반드시 ST를 읽는다. 주제 및 내용을 이해한다. SL에서 해당 장르가 갖는 장르관습을 인지한다.
C. 번역 전략 수립 및 문제 영역 해결 방법 (번역 중-번역 후)	번역의 방향 설정, TT 독자가 알고 있을/모르고 있을 정보, 장르관습(3-6개 항목)	구체적인 번역전략을 세운다. ST 독자 - TT 독자 간 정보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필요 시 조절한다. TL에서 해당 장르가 갖는 장르관습을 확인한다. ST의 장르관습이 번역 시 조절 또는 재생되어야 할지 판단한다.
D. 자가 감수 (1차 번역 제출 후 수정 시)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의 일치성, 장르관습 합치성, 기타	번역전략과 번역 시의 문제 해결 방법이 번역 브리프가 의도하는 방향과 잘 맞는지 판단한다.

하위항목을 포함한 전체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번역사노트 예시(7주차 보고서 번역용)

이름				
날짜 및 번역과제명				
번역브리프		번역브리프를 붙여넣기 해주세요		
A) ST-TT 프로필 비교 (번역 전 작성)	A-1. 텍스트의 의도된 기능			
	A-2. 텍스트의 장르			
	A-3. 대상 독자			
	A-4. 텍스트 수용의 시간과 공간			
	A-5. 매체	계재 매체 문어 or 구어		
	A-6. 번역의 목적			
B) ST 분석하기 (번역 전 작성)	B-1. 주제 분야			
	B-2. 내용			
	B-3. 전개	독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		
		독자가 모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		
	B-4. 장르 관습	전문용어		
		강(목)차 표기 형식		
숫자 표기 형식				
정형화된 문구나 관습적 표현				
문말표현				
	기타 관습으로 볼 수 있는 요소			
C) 번역과정 에서의 문제영역과 해결 방법 (번역 중 +번역 후 작성)	C-1. 번역의 기능 결정	기록적 번역		
		도구적 번역		
	C-2. 번역브리프 분석 후 TT 상황에 맞게 변경되어야 하는 기능적 요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C-3. 전개	독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		
		독자가 모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들		
	C-4. 장르 관습	전문용어		
강(목)차 표기 형식				
숫자 표기 형식				
정형화된 문구나 관습적 표현				
문말표현				
	기타 관습으로 볼 수 있는 요소			
C-5. 기타 코멘트				
D) 번역 후 자가감수 (1차 번역 후 자가감수 시 작성)	D-1. 의도된 텍스트 의 기능과 본인 TT 기능의 일치성 여부	기능이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나?		
	D-2. 장르 관습	TT는 의도된 또는 기대된 장르 관습을 지켰나? 아니라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나?		
D-3. 기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어떻게 해결했나?				
D-4. 기타 코멘트				

4. 학습자 심층면담의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번역사노트에 대한 학습자들의 자유 반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반구조적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실시 시기는 모두 16주차가 끝난 학기말이었다. 수집된 질적 자료는 전사 작업을 거쳐 코딩(coding)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녹취록을 전사한 후 개방코딩→축코딩¹²⁾의 단계로 진행하였다. 질문 항목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번역사노트 작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 2) 세부 항목 평가
 - ① 어느 항목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② 그 결과 개선이나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
- 3) 번역사노트 도입 전과 후 번역 과업 순서의 변화
 - ① 도입 전과 도입 후 구체적 번역 과업 순서
 - ②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인식, 활용 도구 등도 포함

4.1. 전반적 평가

먼저 번역사노트 활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평가를 살펴보겠다. 번역사노트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긍정적 감상, 부정적 감상(미해결·해결)으로 구분된다.

4.1.1. 긍정적 감상

먼저 긍정적인 감상으로 분류된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개방코딩은 자료를 해체시켜 범주나 그 속성 그리고 차원의 위치를 알아보게끔 하는 것으로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시키는 분석 작업이다(Strauss & Corbin 1990: 76, 117). 한편 축 코딩은 개방코딩된 1차 자료에 나타난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연관 지어 서로 의미의 연합관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이다(ibid: 117). 본 연구에서는 분석 방법의 세부적인 절차 및 지침에 관하여 Strauss & Corbin(1990)을 참조하였다.

〈표 5〉 번역사노트 사용에 대한 긍정적 감상과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명수	학습자
긍정적 감상	a. 번역 전 화용적 요소(목적, 기능, 독자 등)를 인식하고 번역전략을 수립하게 된 점	6	S1, S2, S5, S7, S8, S9
	b. 번역 시 문제 영역(어휘적, 장르적 문제)을 해결할 때 화용적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게 되어 문제 해결이 수월해짐	2	S6, S7
	c. 본인의 번역전략에 대한 기준, 근거를 수립하게 된 점	3	S3, S6, S9
	d. 장르관습을 인지하게 해 준 점	7	S2, S3, S4, S6, S7, S8, S9
	e.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해줌	4	S1, S4, S7, S9
	f. 새로운 시각의 제공. 번역의 방법을 배울 수 있었음	2	S6, S9
	g. 자가 감수를 통해 공부가 됨	2	S2, S3, S4

상기 범주 중 a)와 b)는 학습자들이 번역 시 화용적 요소를 언어적 요소보다 상위에 두고 번역의 방향성과 전략을 고려하는 문제 해결 방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하향식 접근법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에 부합한다. c)는 화용적 요소에 대한 고려나 하향식 문제해결과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기준에 뚜렷한 근거나 기준 없이 상향식 방법으로 번역을 해 왔던 습관에서 탈피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현상으로 파악되어, 이 또한 하향식 문제 해결 방법이 정착된 결과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범주 a)는 학습자들이 기준에 화용적 요소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세 명의 심층면담 내용 전문과 개방 코딩 결과를 다음과 같이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 S5

개방코딩: 번역 시 화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습관이 생겨 도움이 됨

전문: 뭔가 이걸 쓰는 거를 계속 저희가 항상 농담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항상 이게 문제였고,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결했다고 적는 걸 하니까, 다들 통역할 때도 막 바꾸면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바꾸셨어요?’라고 할 정도로 진짜 습관이 된 것 같아서... 물론 현장에 나가면 이거를 쓰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ST분석을 한다던가, 항상 기능이나 독자 같은 걸 생각해서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한다던가 그 습관 자체가 생기는 게 도움이 됐어요.

학습자 S5는 번역 시 화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습관이 생겨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통역 연습을 할 때도 이러한 판단 근거를 활용하게 되었다고 한 점이다. 이는 번역뿐 아니라 다양한 통번역 상황에서 하향식 접근법의 사고 흐름이 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주는 대목이었다.

학습자 S7

개방코딩: 화용적 요소를 고려함에 따라 번역 품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됨. 전문통번역사로서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됨

전문: (화용적 요소를 고려하여 번역하는 것이) 되게 프로페셔널 한 거 같아요. 왜냐면 ‘어 왔구나! 번역해야지’ 해서 번역해서 딱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쓰이는 거지?’ 이렇게 먼저 고민을 하고 하면 훨씬 질 자체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서 뭔가 ‘역시 프로는 달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하기 쉬운 오프나 잘못된 편견이 그거잖아요. 외국어 좀 하면 ‘번역 잘하겠네? 통역 잘하겠네?’ 이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나 외국어 좀 할 줄 아니까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이런 거 생각 안하고 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함에 따라서 그 사람들과 차별화를 할 수 있고, 훨씬 그 사람들도 약간 의뢰인도 이걸 알고서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는 결과물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역시 달라’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학습자 S7의 응답에서는 하향식 접근법이 번역 품질 향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나타나 있으며 이 점이 이중언어만 구사하는 비전문번역사와 비교했을 때 전문번역사의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학습자 S9

개방코딩: 화용적 요소를 인식하고 번역하게 되었음. 실제 현장에서 화용적 요소를 의뢰인에게 문의하게 됨. 사고 흐름이 체화됨

전문: ‘TT에서 독자가 모르고 있을 것’ (이 항목을 고려해보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독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번역할 텐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니까 이걸 하나를 하더라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략)...최소한 저도 얼마 전에 의뢰가 들어 왔었는데 그걸 제가 먼저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왜, 어디다 쓸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걸 옆두에 두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학습자 S9는 기존에는 언어 대 언어에만 주목했으나 이제는 실제 번역 현장에서 화용적 요소를 의뢰인에게 문의하게 될 만큼 하향식 접근법이 내면화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이 학습자의 번역사노트를 일부(ST 분석과 번역 전략 수립 부분) 발췌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수업 마지막 과제(15주차, 브리프는 부록에 제시)의 번역사노트로, 밑줄 친 부분을 살펴보면 S9 학습자가 제시된 번역 브리프의 화용적 요소(①독자 정보, ②텍스트 사용 시공간, ③목적, ④장르 특성)을 중층적으로 고려하여 기능적 충실성을 달성하기 위한 번역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⑤언어적 층위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화용적 요소를 단서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서 학습자 S9가 언급한 바와 같이 하향식 접근법의 사고가 내면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학습자 S9의 번역사노트

	B. ST 분석하기	C. 번역과정에서의 문제 영역과 해결방법
번역 유형 결정	도구적 번역 (③한국의 교육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일본의 교육업계 관계자 및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번역의 목적)	
독자가 알고 있을 정보	- ST에 등장하는 고유명사 중 부처 이름 및 정권 이름(교육부, 문민 정부, 국민의 정부 등)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 ST에 설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한국의 대학입시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며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인식 + 수능에 대한 개념) 등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① -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가 일본의 문부성과 같은 교육 담당 부처라는 사실 정도는 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알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 한국의 교육 현황 및 대학입시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한국의 교육열&대학입시경쟁이 대단히 치열하다는 정도).
독자가 모를 정보	- 교육 관련된 구체적인 조직명 및 정책명 등은 모를 것으로 가정한다(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개혁위원회,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과교실제). - PPT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책 관련 담당자 이외에는 모를 것으로 가정한다(교육개혁의 방향성 및 추진 방안,	① - 한국정부의 교육정책 또는 개혁내용, 세부적인 기관명, 정책명, 제도명 등은 모른다고 가정한다(수석교사제, 누리과정, 마이스터고, 교과교실제 등).

	<p>경과, 등). - 누리과정, 마이스터고 등의 특정 기관 명/제도명 등은 들어본 적은 있을 지라도 정확한 내용과 특징은 모른다고 전제한다.</p>	
번역전략	<p>[원문 표현 vs 정보적 기능] - 고민요소: ⑤ 원문 표현을 어디까지 그대로 살려줄 것인가? 보다 수월한 이해를 위해 (정보적 기능을 살려) 일본어식 표현으로 바꿔줄 것인가? - 번역방향: ⑤ 한국정부의 교육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유명사를 비롯해 한국 교육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요소 및 명칭 등은 일본어에 없는 표현이라도 그대로 번역함 & 단지 의미 전달을 위한 표현이라면 일본어식 표현으로 번역. - 예시: (전자) 마이스터고, 누리과정, 교육감, 학교자율화, 학자금상환제, 산학협력선도대학 등 (후자) 교육과정->カリキュラム / 소외계층->經濟的弱者 / 평생학습->生涯學習</p> <p>[정확한 정보 전달 vs 이해도 제고] - 고민요소: 한국의 교육개혁 방향 및 추진경과, 세부내용 등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목적과 그러나 문서가 아니라 화면 자료와 발표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야 한다는 제약 하에서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 사이에서 고민되었다. 자료 화면에 청중이 모를 것이라 가정되는 구체적인 정보가 상당히 많아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단지 일본어로 바꾸기만 해서 잘 전달이 될지 의문이 들었다. - 번역방향: 해당 자료를 아무런 설명 없이 자료만으로 배부한다면 특정 제도/고유명사 등에 대한 추가 설명이 없다면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가 될 것이다. 그러나 ② 프레젠테이션의 제한된 시간상 발표자가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발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특히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할 것이다. 또한 ① 일본인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세부적인 내용(누리과정, 마이스터고 등)을 언급할 때에는 일본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곁들일 것이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에서도 세부 내용들은 한국인 청중(일반인 가정) 입장에서 잘 모르는 내용이 많으나 ④ 설명서가 아니라 보고 듣는 발표 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은 없으며 굳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TT역시 원문에 없는 설명을 곁들이는 작업은 안 하기로 결정했다.</p>	

4.1.2. 부정적 감상

다음으로는 부정적 감상을 살펴보겠다. 크게 ‘해결’과 ‘미해결’의 두 범주로 분류된다. 먼저 ‘해결’ 범주는 부정적 감상이 시간의 흐름이나 체화 등에 따라 해결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미해결’ 범주는 면담 시점까지 부정적 감상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를 나타내며 개선점과도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자 응답을 범주화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7〉 번역사노트 사용에 대한 부정적 감상과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명수	학습자
부정적 감상	미해결	a) 작성에 시간이 소요됨	4	S2, S4, S5, S9,
		b) 짜임새 있는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	3	S2, S4, S5
		c) 과제로서의 부담감	2	S2, S9
		d) 항목의 유추 및 기술이 어려움	2	S1, S3
		e) 제출물로서 완성도에 대한 불안감	1	S9
	해결	f) 시간 소요 → 해결	1	S3
		g) 노력 소요 → 해결	2	S2, S6
		h) 목적에 대한 의구심 → 해결	2	S5, S6

먼저 미해결 문제로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언급은 4명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났다. 시간 소요에 대한 이유도 학습자마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텍스트 분석이나 근거를 대는 작업 활동 경험이 처음이어서’(S5, 41), ‘과제하는 입장에서는 (뭐든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느낌’(S4) 등의 답변이 있었고 번역사노트 작성할 시간을 ‘번역에 더 투자하고 싶었음’(S2, S4)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장르관습 비교할 때 병렬텍스트를 찾아보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S9)과 같이 높은 학습 의욕으로 인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토로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3명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났다. 이 항목은 본인의 생각이나 판단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 이유로는 ‘막연하게 생각하며 번역했던 경험으로 인해 번역 시의 본인의 판단 기준을 글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음’(S4), ‘과제로서 제출하는 것이므로 짜임새 있는 문장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S2) 등이 있었다. 특히 S2는 과제로서의 부담감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교사가 제출한 번역사노트를 보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정적 감상이지만 학습자가 느꼈던 문제점이 해소된 ‘해결’ 범주의 응답을 살펴보겠다. 먼저 시간이나 노력이 소요되었으나 시간의 흐름이나 체화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응답한 학습자는 총 3명(S3, S5, S2)이었다. S3은 ‘초반 한 두 번은 오래 걸렸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 단축되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는 ‘익숙해지고 사고의 틀이 잡혀 후반부는 쓰기 편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력의 소요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번역사노트 작성이 힘들었으나 나중에는 작성을 통해 감수 시 편해졌음(S6)’과 같이 답하여 작성 요령이 숙지되면 시간·노력 소요의 문제가 일정 수준 해소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4.2. 개선점 도출을 위한 세부 항목 평가

다음으로 번역사노트의 개선점 도출을 위한 응답 범주를 살펴보고자 한다. 취합된 응답은 상기 부정적 감상과 함께 개선점으로 통합되어 후속 연구에 반영될 것이다. 크게 두 가지 상위 범주로 분류된다. 첫째, 항목별로 어려움을 느낀 항목과 그 이유, 둘째는 형식이나 문구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위 범주화 결과는 다음과 같다.¹³⁾

〈표 8〉 개선점 도출을 위한 세부 항목 평가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항목 번호	명수	응답 학습자
어려움을 느낀 항목과 이유	a. 유추가 어려웠던 항목	C-3	4	S3, S5, S6, S7
		A-4	3	S1, S2, S6
		B-3	3	S2, S3, S8
	b. 기술이 어려웠던 항목	C-4	2	S4, S9
		B-3	1	S1
	c. 개념 이해가 어려웠던 항목	A-1/A-6	1	S7
		A-4/A-5	1	S7
		B-4	1	S2
	d. 교사-학습자 관계로 인해 작성하기 어려웠던 항목	D-1	4	S2, S3, S4, S7
		C-2	2	S9, S4,
C-4		2	S8, S9	
개선이 필요한 항목	e. 레이아웃 변경		5	S1, S2, S3, S4, S9
	f. 서술식 항목으로 변경 또는 추가		3	S2, S8, S9
	g. 질문 문구의 변경		2	S1, S7

먼저 ‘a) 유추가 어려웠던 항목’과 관련하여 B-3, C-3과 같이 독자 유추를 어려워하는 학습자가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학습자의 직장 근무 경험 유무에

13) A-1부터 D-4는 그림 3에 제시된 번역사노트의 각 항목에 해당된다.

따라 독자, TT 사용의 시공간, 게재 매체 정보 유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답변이 나뉘었다는 점이였다. 직장 근무 경험이 있는 학습자들(S4, S8, S9)의 경우에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배포’라던가 ‘회의장에서 ppt로 화면에 띄울 예정’과 같은 번역 브리프에 제시된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리는 데 ‘경험상’ 별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변한 반면, 학부 졸업 후 바로 진학하는 등 직장 근무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S1, S2, S3, S5, S6)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유추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습자의 프로필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한편 d)항목은 연구자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번역사노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교사-학습자간의 사회적 관계가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령 번역사노트 C-2/D-1 항목은 번역 브리프에 명시 또는 암시된 텍스트의 기능과 본인이 번역한 TT의 기능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당초 연구자 입장에서는 ‘예, 아니오’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항목이었다. 그러나 일부 학습자 응답 중에는 주어진 항목을 채우지 않거나 단언형, 단답형으로 작성하는 것이 교사에 대한 ‘무성의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학습자들은 교사의 평가에 대한 부담감과 본인 의사를 단도직입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e) 레이아웃 변경 범주와 관련된 의견으로 번역사노트의 ‘B) ST 분석하기’ 항목과 ‘C) TT 전략 수립’ 칸을 횡렬 배열로 변경해주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다. B)와 C)의 일부 항목(독자, 장르관습)은 세트화되어 있다. C)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B) 항목으로 돌아가 본인이 분석한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상에서 작성하다 보면 스크롤을 아래위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개선되면 왼쪽에 ST 분석, 오른쪽에 TT 전략을 한 화면에 띄어놓고 대조하면서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되어 학습자의 인지 활동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4.1.2의 부정적 감상과 4.2절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4.4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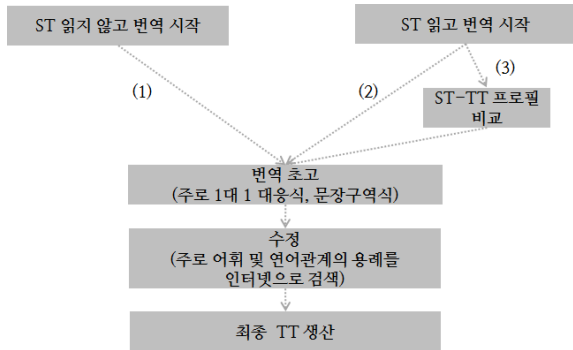
4.3. 학습자 번역 과업 순서의 변화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번역 과정이 하향식 접근법과 번역사노트 도입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 과정은 번역 순서뿐 아니라 인식, 활용 도구 등의 변화를 포함한다. 대상 기간은 ‘도입 전’과 ‘도입 후’로 구분하였고 전자는 학습번역을 시작한 이후부터 본 수업의 3주차 이전까지의 기간, 후자는 3주차 이후부터 16주차 종료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¹⁴⁾.

4.3.1. 번역사노트 도입 전

먼저 도입 전 번역 순서에 대한 학습자 답변을 도식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그림 4〉 번역사노트 도입 전 번역 순서



- (1)유형: ST를 읽지 않고 번역 시작 → 번역 초고 → 수정 → 최종 TT
- (2)유형: ST 읽고 번역 시작 → 번역 초고 → 수정 → 최종 TT
- (3)유형: ST 읽고 번역 시작 → ST-TT 프로필 비교 → 번역 초고 → 수정 → 최종 TT

먼저 기존 번역 과정과 관련하여 흥미로웠던 점은 학습자들이 화용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느냐를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로 여겨질 만큼 ST조차 읽지 않고 번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1)유형-S1, S3, S7, S9). 특히 ST를 한 문장, 또는 그 보다 작은 단위로 읽은 후 “1:1 대응으로” 또는 “문

14) 학습자들이 본격적으로 번역사노트를 작성한 것은 4주차 과제부터이다. 1-3주차까지는 최종 TT만을 제출하는 방식이었으므로 대상 기간에 포함시켰다.

장구역처럼” 번역했다고 응답한 학습자도 3명이었다.

번역 전 ST를 읽은 학습자는 다섯 명(S2, S4, S5, S6, S8)이었다. 그러나 ST 읽기가 반드시 유기적인 TT 전략 수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가령 ‘ST를 읽고 바로 직역을 했다(S2)’거나 ‘전체를 읽긴 해도 내용을 파악하기보다 어려운 표현은 없나 등 표현 중심으로 많이 봤다(S5)’, ‘ST는 읽었으나...(중략)...어떤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니고 축어적으로 번역을 해나갔던 것 같다(S6)’와 같은 응답들이 이를 잘 드러낸다. 대략적이기는 하나 번역 전에 번역의 목적이나 TT의 용도, 독자 등에 대해서 고려하고 번역을 시작했다고 답한 학습자는 1명(S8)뿐이었다.

번역의 초점 또한 어휘, 표현 등 언어적 층위에 맞춰져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현에만 집중(S1)’, ‘뜻만 살려서 하면 된다고 생각(S4)’, ‘자연스럽고 예쁜 어휘와 표현에 집중(S5)’, ‘어휘나 표현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그 낱어 스도 옮겨질 것으로 생각(S7)’, ‘표현에만 집중했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 없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고자 했음(S9)’ 등과 같은 답변이 이를 잘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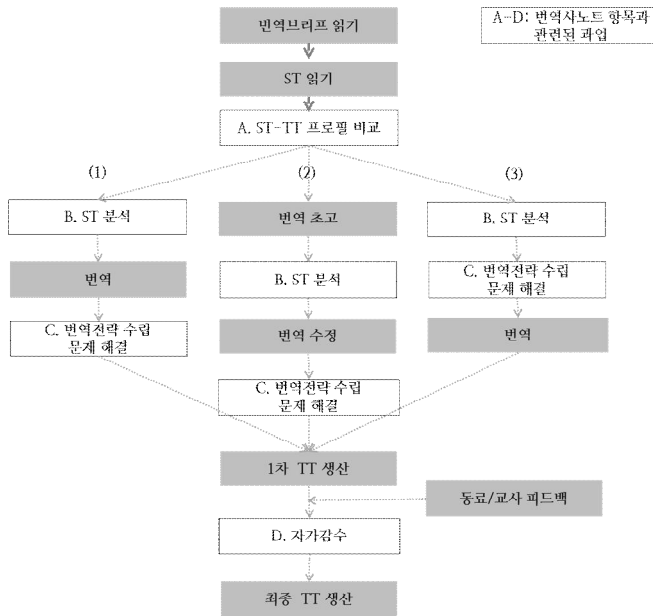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번역에서의 문제 해결 층위도 화용적 요소보다 언어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자 대다수가 번역 초고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확신이 안 드는’, ‘걸리는’ 문제 영역은 체크해두었다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선택한 어휘, 표현, 관용구 등이 실제로 쓰이는지를 검색하거나 번역한 문장을 통째로 넣어서 용례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 학습자(S3)는 관용구 번역을 위해 한영사전→영일사전→일영사전과 같이 영어사전을 매개로 검색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문제 해결 시에는 화용적 변수를 중요한 단서로 고려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번역 과정에서 비번역 병렬텍스트를 의식적으로 참조했던 학습자는 소수(S2, S4)에 그쳤다. 병렬텍스트 참조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기존에는 대부분 기사문을 번역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키워드를 넣어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인터넷에서 참조 가능한 장르가 대부분 기사문이라는 점에서)’, ‘기존에는 다양한 장르를 다루어본 적이 없어 장르나 장르관습을 인식하거나 고려해본 적 없기 때문(S2, S3, S4, S6)’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4.3.2. 번역사노트 도입 후

다음으로는 본 수업에서 번역사노트 도입 후의 번역 과정 순서에 대한 답변 결과를 살펴보겠다. 이 과정은 번역사노트의 사용 순서도 포함하며, 해당되는 노트 항목은 다음과 같이 별도 상자로 표시해두었다.

〈그림 5〉 번역사노트 도입 후의 번역 순서



심층면담 결과 학습자 전원이 번역 전 번역 브리프 읽기 → ST-TT 프로필 비교 → ST읽기 작업을 끝내고 번역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번역 브리프 보기 → ST 읽기 → A → B → 번역 → C → 제출

이 유형은 번역 전에 ST-TT의 차이를 비교하고, ST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번역에 임하는 순서를 의미한다. 학습자 여섯 명(S1, S4, S5, S7, S8, S9)이1)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번역 과정과 관련된 학습자 답

변 중에는 ‘ST의 주제나 내용을 간단히 쓰고, 독자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번역을 했다(S4)’, ‘번역 전 ST 읽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S7)’는 언급이 있었다.

(2) 번역 브리프 보기 → ST 읽기 → A → 번역 초고 → B → 번역 → C → 제출
 다음으로 학습자 S2, S3 두 명은 먼저 ‘번역 초고’ 과정을 거친 후 ST를 분석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다른 과제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수 없어서(S2)’, ‘(원거리 통학으로) 시간에 쫓겨서(S3)’와 같이 답해, 시간적 부담감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위의 1)과 2) 유형 모두 C) 항목에 대해서는 번역 후 의사결정의 근거를 대거나 번역 전략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3) 번역 브리프 보기 → ST 읽기 → A → B → C → 번역 → 제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번역 전에 번역사노트를 먼저 작성하고 번역에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 S6이 이 유형에 해당되는데 이 학습자는 초반 1-2회는 (1) 유형으로 번역을 하다가 (3) 유형으로 바꾸었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관하여 ‘번역에서 문제가 될 영역을 미리 정리해두고 번역을 하게 됨으로써 번역 중 검색이나 고민에 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번역사노트를 활용하게 된 이후 학습자들의 번역 순서에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번역 브리프를 매개로 TT의 이미지나 방향을 유추한 후, 번역전략을 설정하고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관용구나 SL 특유의 어휘, 표현 등 언어적 문제에 봉착했을 때, 번역 전 설정한 TT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했다는 변화도 있었다. ST를 읽지 않고 번역하는 일부 학습자들의 잘못된 습관도 개선되었다.

한편 병렬텍스트 참조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학습자 전원이 번역 시 병렬텍스트를 참조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참조 시기는 1차 번역 때가 대부분이었고 자가 감수 시에는 주로 토론 내용과 교사 피드백을 참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식적으로 참조하기 시작한 것은 5주차 전후라는

응답이 많았다(S1, S2, S3, S7, S8, S9). 수업에서 다양한 장르를 다루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으나 번역사노트의 C) 항목 중 장르관습을 대조 분석한 후 번역의 방향을 기술해야 하는 항목 작성이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4.4. 분석 결과의 함의

심층면담 결과를 근거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번역사노트의 효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학습자들의 번역 과업 순서와 방법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기존의 ‘1대 1 대응’이나 ‘문장구역’처럼 번역했던 언어 층위의 단순 맵핑의 습관이 개선되었다. 번역 전에는 ST-TT 프로필 비교를 통해 반드시 화용적 요소를 점검하게 되었고 그 변수에 따라 번역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아울러 번역과업에 있어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과정이나 의외로 간과되기 쉬운 ST읽기가 학습자 번역 과정의 한 단계로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습자들의 문제 해결의 접근법이 언어적 층위 → 화용적 층위+언어적 층위로 변화하였다. 기존에는 어휘, 표현 위주에만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했었다면 이제는 번역에서 부딪힌 언어와 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위 요소(화용적 변수)를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하향식 접근법과 번역사노트는 학습자들이 번역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다음으로 향후 개선점을 세 가지로 압축하여 살펴보겠다. 이는 학습자들의 부정적 감상과 어려움을 느낀 항목,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결과에 토대를 둔다.

첫째, 번역사노트 작성에 대한 시간과 노력 소요에 대한 부담감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들은 시간 소요에 대한 부담감을 상시 내재한다. 여기에 통학 거리, 높은 학습 의욕, 육아 여부 등의 다양한 요소가 부가되면서 그 부담감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성 빈도를 줄이거나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통해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 개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화용적 정보 유추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 지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사회 · 직장 근무 경험이 없는 학습자들의 경우 화용적 정보 유추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평소 수업이나 번역 브리프를 통해 구체적인 이미지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상세한 설명은 필수일 것이고 게재 매체나 텍스트 수용 장소 정도는 사진이나 현물 자료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번역사노트 항목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다. 일부 항목의 경우 교사-학습자 간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평가자’로서 교사를 바라보는 학습자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결 방법으로는 고압적이지 않으며 친절한 부연 설명이 첨가된 문구를 고안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칸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낮은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시로 인지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학습자 관계를 일종의 평가자-피평가자로 인식하는 경직된 관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반영한 번역사노트 수정본을 논문 말미에 부록 2로 제시하고자 한다.

5. 결론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번역 수업에 하향식 접근법의 개념을 도입하고 학습자들의 인지적 활동을 위한 보조도구로 활용한 번역사노트의 효용성과 개선점을 살펴 보았다. 심층면담 분석과 고찰을 통해 번역사노트가 인지적 성장과 사고 흐름의 유도 및 내면화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후속 연구로는 코딩을 비롯한 질적연구 방법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맹점을 보완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의 참여 관찰 기록, 학습자 TT, 번역사노트 등과의 삼각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습자 인식의 변화가 타 자료에는 어떻게 연계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구의 효용성에서 범위를 넓혀 하향식 교수 학습 접근법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접근법으로 인한 학습자의 인식 변화가 1) 번역전략 수립 능력, 문제 영역 해결 능력 향상 2) 번역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접근법의 교육적 함의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본 연구는 통번역대학원 학습자 번역물에 언어적, 장르적 치환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번역의 화용적 요소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이 없는 번역 습관에 의해 일어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고품질 번역에 대한 시장의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번역에 필요 충분한 정보가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에이전시를 통해 번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번역물의 용도나 독자 등의 관련 정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의 보안 강화도 정보 접근 장벽을 높이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번역사는 제한된 정보 범위 내에서 번역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번역에서 맞닥뜨린 문제 영역을 해결해나가는 데 주어진 화용적 정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번역사의 의사 결정은 언어적 직관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정당성과 당위성이 담보될 것이며 전문번역사로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평가 획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통)번역사를 양성하기 위한 통번역대학원 번역수업에서는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시야에 넣은 번역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 제안한 하향식 접근법과 번역사노트가 전문번역사 교육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경이 (2011) 「번역수업에서 번역과제물 감수활동을 통한 다면평가 제안」, 『번역학연구』 12(4): 7-32.
- 김대영 (2014) 「학부 차원에서의 전문 번역교육 가능성」, 『통번역학연구』 18(1): 41-57.
- (2013) 「프랑스의 번역 수업 방식 및 평가 연구 -파리 통번역대학원(ESIT)과 파리 3대학 수업 관찰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5): 68-93.
- 김수지, 신경림, 옴김 (1996) 『근거이론의 이해』, 서울: 한울아카데미(Anselm L. Strauss & Juliet M. Corbin.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 김진숙 (2012) 「번역강의실에서의 의사소통: 석사과정생들의 번역 브리프와 번역의 관계에 관한 실험연구」, 『번역학연구』 13(2): 41-63.
- 김혜영 (2004) 「번역 과정 중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분석: TAP의 대체 방법으로서의 번역일지」, 『통역과 번역』 6(2): 23-38.
- 배만호, 박기성, 안동환, 윤일환, 김용규 옮김 (2010) 『번역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동인 (Sonia Colina. 2003. *Translation Teaching, from Research to the Classroom*. Boston: McGraw-Hill).
- Adab, Beverly (2000) 'Evaluating Competence', In Christina Schäffner, Beverly Adab(Ed.),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 Philadelphia, PA: J. Benjamins.
- Gile, Daniel (2005) *La traduction, La comprendre, l'apprendre*, Paris: PUF.
- Harvey, Keith (1998) 'Compensation and the Brief in a Non-literary Translation: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edagogical Application', *Target* 10(2): 267-290.
- Kiraly, Donald C. (2000)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to Translator Education: Empowerment from Theory to Practice*, Machester: St Jerome.
- Nord, Christiane (1988/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Amsterdam: Radopi.
- (1997) *Translating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Manchester, UK: St. Jerome.
- Robinson, Douglas (1997/2003) *Becoming a Translator: An Introduction to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2nd ed.), London: Routledge.
- Shreve, Gregory (1997) 'Cognition and the Evolution of Translation Competence', In Dankes, Joseph, Gregory M, Shreve, Stephen B. Fountain, and Michael K. Mcbeath, (Ed.), *Cognitive Proces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Thousand Oaks London, and New Kelhi: Sage, 120-36.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 Philadelphia: J. Benjamins.

〈부록 1〉 번역 브리프 예시

5주차 번역 브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역 목적: 한국의 'HCW출판사'는 일본인 작가 森浩之(Mori, Hiroyuki)씨와 그의 문학 작품 '戀の季節'를 한국에서 번역 출판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본격적인 계약에 앞서 한국 'HCW출판사'는 한국출판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출판계약서'의 전반적 내용을 森浩之씨에게 번역하여 제공한 후 추가 사항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 예상 독자: 森浩之씨와 관계자(소속 에이전시) • ST의 장르: 계약서 - 출판계약서 • 게재 매체: e-mail로 전달될 MS word 문서 • 번역물 납기일(제출 기한): 9월 28일 토요일

11주차 번역 브리프	
A팀	B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 일본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번역 목적: 해당 대학교의 한국어 관련 학과의 교재로 쓰기 위하여 번역을 의뢰한다. 한국어 관련 학과의 2학년 수업 중 한국어 독해, 강독 등의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한국어/일본어 대역 자료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예상 독자: 예상 독자는 한국어 관련 학과 2학년 및 한국어를 공부하는 중급 정도의 학습자이다. • 게재 매체: 대학 교과서이며 번역된 자료는 왼쪽에 한국어, 오른쪽에 일본어를 배치시킬 예정이다. • 번역물 납기일(제출 기한): 11월 9일 토요일 • 기타: 프로젝트 리더 1명, 용어 및 내용 관련 조사 담당 2명, 번역 담당 1명, 감수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 남원시청 • 번역 목적: 남원시청에서는 2014년을 '남원 관광의 해'로 정하고 각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에 다양한 홍보 자료를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본 자료는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번역 요청하며 일본어 홈페이지 중 '관광' 메뉴에 게재될 예정이다. • 예상 독자: 예상 독자는 한국에 관심이 있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 여행을 생각하고 있는 일본인이다. • 게재 매체: 남원시청 홈페이지의 일본어 페이지 • 번역물 납기일(제출 기한): 11월 9일 토요일 • 기타: 프로젝트 리더 1명, 용어 및 내용 관련 조사 담당 1명, 번역 담당 1명, 감수 1명

15주차 번역 브리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뢰인: 교육부 인재정책실 • 번역 목적: 2013한일교육심포지엄에 사용될 자료로 번역 • 예상 독자: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 및 심포지엄 참가자 • 게재 매체: ppt로 화면에 띄울 예정 • 번역물 납기일(제출 기한) : 12월 10일 화요일 • 기타: ST 작성 시기는 2012년 8월. 2013 교육심포지엄용으로 쓸 것이며 날짜를 비롯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은 의뢰인에게 메일로 문의한 후 수정 바람. 1-2p, 8-11p만 번역할 것

〈부록 2〉 번역사노트 수정본

번역사 노트 W6		이름 _____
날짜 및 번역과제설명		
번역브리프	여기에 브리프를 붙여넣기해주세요	
1. ST-TT 프로파일 비교(번역 전 작성) ST와 TT가 사용되는 상황을 유추하고 비교해봅시다.		
ST		TT
	텍스트의 기능 ¹	
	텍스트의 주요 기능 ²	
	텍스트의 장르	
	대상 독자	
	텍스트 수준의 시간과 공간 ³	
	계차 매체 ⁴	
	제작 동기 ⁵	
<p>¹ ST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TT에서는 ST의 기능이 달라집니까?</p> <p>² ST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 TT의 주요 기능은 무엇일까요?</p> <p>³ ST의 독자들과 TT의 독자들은 이 텍스트를 언제 어디서 읽을까요? 유추해봅시다.</p> <p>⁴ 각각 어디에 게재되나요?</p> <p>⁵ 이 텍스트가 만들어진 동기는 무엇일까요? 유추해봅시다.</p>		
2. ST분석과 TT 번역전략 수립하기(번역 전) ST를 잘 읽고 워 프로파일도 참조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봅시다.		
<p>TT 독자가 이미 알고 있어서(또는 너무 상세해서) 생략해도 될 정보가 있을까요? 또는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해주어야 할 정보가 있을까요?</p> <p>이 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할 계획인가요? 나의 번역전략을 간략하게 설명해봅시다.</p>		
3. TT의 문제영역 해결하기(번역 중·번역 후)		
<p>① 다음 항목을 비교해봅시다.</p> <p>② 번역하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이 있나요?</p> <p>③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해결했는지) 전략을 간략하게 적어봅시다.</p>		
ST		TT
	전문용어	
	도표나 출처를 나타내는 표현	
	문말표형	
	기타	
	관습으로 볼 수 있는 요소	
4. 기타 코멘트(번역 후) 번역하면서 무엇/어느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p>1차 번역 후 자가 수정 시 작성해주세요</p>		
5. 자가 감수(수정 시)		
<p>텍스트가 사용되는 상황⁶ 을 고려했을 때 TT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나요?</p> <p>이 장르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번역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p> <p>장르나 장르관습과 관련하여 TT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나요?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나요?</p> <p>기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p>		
6. 기타 코멘트 혹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p>⁶ 목적, 독자, 텍스트 기능, 매체 등 ST-TT 프로파일 비교에서 살펴본 사항들을 가리킵니다.</p>		

[Abstract]

**Effectiveness Of Translator's Note
In Top-Down Translation Teaching Approach**

— Qualitative Analysis Focu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Learners —

Hahm, Su J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fulness of the 'Translator's Note', a translation assisting tool implemented in the 'Top-Down Translation Teaching Approach', and find points on which it can be improved.

The 'Top-Down Translation Teaching Approach' was designed to induce learners to be aware of the pragmatic elements involved and to make use of them in their translations. The process involved in said approach, however, deals with very cognitive and abstract concepts, and the 'Translator's Note' was implemented as a means of aiding learners in grasping them.

The 'Translator's Note' was observed to be useful in terms of enhancing cognition and inducing pragmatic thinking in learners, based on the results from in-depth interviews. First, it brought about positive changes in their task order and translation habit. Secondly, learners began to consider, or at least notice the existence of, important pragmatic elements that could be involved when faced with translation problems, instead of just focusing on the linguistic layers of the text, which is what they used to do.

There is a need to observe whether or not improvement in cognition and awareness in learners have a close link to changes in their translations in follow-up studies, as the results could add reliability and validity.

- ▶ Key Word: top-down approach, functional hierarchy of translation problem, Translator's Note, process-oriented class, student-centered class

함수진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일과 강사

sujin0810@hanmail.net

관심분야: 번역 교수 · 학습법, 과정 중심/학습자 중심 교수 · 학습법, 장르관습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